

케이블·OTT는 '드라마 올림픽'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SBS 드라마 '굿파트너'부터 평일 저녁을 장식하던 인기 예능 프로그램까지. 지상파 3사가 올림픽 중계 체제에 본격 돌입하면서 안방극장이 텅 비었다.

3주간의 방송가 공백기를 틈타 각종 케이블 방송사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다채로운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제2의 '선재 업고 튀어' (이하 '선업튀')로 주목받는 tvN '우연일까?'가 눈길을 끈다.

배우 김소현과 채종협이 주연하는 '우연일까?'는 사랑에 서툴렀던 열아홉살 때 만난 남녀가 스물아홉살에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로맨스 드라마다.

학창 시절을 배경으로 풋풋하면서도 애뜻한 첫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전개가 뜨거운 화제몰이에 성공했던 '선업튀'와 비슷하다는 평을 받는다.

드라마는 로맨틱코미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리셰를 적절하게 버무린다.

운명처럼 재회한 두 주인공이 우연히 계속 마주치게 되면서 10년 전의 설렘을 다시 느끼는 이야기가 뻘하면서도 익숙한 재미를 자아낸다.

JTBC는 막판 스퍼트를 내는 두 편의 드라마로 흥행 쌍끌이를 노린다.

종영까지 4회를 남겨둔 주말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첫 회 시청률 4.0%로 출발해 서서히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12회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 9.4%를 기록했다.

공중파 올림픽 중계 틈타 대거 신작 연·스릴러 등 다채...시청률 경쟁

드라마는 20대 취업준비생 이미진(정은지 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낮 시간에만 서한지방검찰청의 50대 시니어 인턴 임순(이정은)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다소 황당무계한 판타지 설정이지만, 투박으로 작품을 이끄는 이정은과 정은지는 빼어난 연기력으로 같은 감정선을 공유하는 2인 1역을 해내며 몰입감을 높인다.

수목드라마 '놀아주는 여자'는 시청률 2~3% 사이를 기록하고 있지만, 화제성을 잡았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매주 발표하는 TV-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화제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놀아주는 여자'는 '굿파

트너'의 뒤를 이어 TV 부문 화제성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드라마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한 조직폭력배 출신 서지환(엄태구)이 키즈 크리에이터 '미니 언니' 고은하(한선화)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아낸다.

장르물에서 주로 카리스마 있고 무게감 있는 역할을 맡아온 엄태구가 산뜻한 연기 변신으로 극에 매력을 더한다.

OTT 디즈니+도 기대작을 꺼내 들었다. 조진웅, 유재명, 염정아, 김성철 등 국내서 내로라하는 연기 잘하는 배우들과 대만 인기 스타 쉬광한(허광한)이 출연하는 '노웨이아웃'을 오는 31일 공개한다.

'노웨이아웃'은 희대의 흉악범이 출소하자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건 공개 살인 정부가 벌어지는 상황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조진웅은 현상금을 노리는 시민들에게서 희대의 흉악범을 지켜야만 하는 경찰 백중식을, 유재명은 13년 만에 출소하는 희대의 흉악범 김국호를 연기한다.

이 밖에 도 쉬광한은 살인정부업자 미스터 스마일을, 염정아는 김국호를 이용해 생명을 연장하려는 호산시의 시장 안명자를, 김무열은 김국호의 법정대리인 이상봉을, 이광수는 거금을 차지하기 위해 김국호를 죽이려 드는 도둑업자 윤장재를 연기한다. 김성철은 수많은 신도를 이끄는 젊은 목사 성준우로 호흡을 맞춘다. /연합뉴스



BTS 지민 '군백기'란 없다

솔로 2집 '후' 스포티파이 4일 연속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사진)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4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8일 밝혔다.

이 노래는 올해 나온 K팝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일 스트리밍 수를 기록하며 19일 자 차트에 3위로 진입했다.

이어 발매 5일 차인 23일 차트에서 1위에 오른 뒤 26일까지 4일 연속 정상을 지켰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K팝 솔로 가수는 BTS 지민과 정국뿐이다.

'후'는 한국, 불가리아, 싱가포르 등 16개국 '데일리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스포티파이 최신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 정상에 올랐으며,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4위로 진입하며 지민의 솔로곡 가운데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후'는 중독성 있는 비트와 기타 연주가 돋보이는 곡으로, 만난 적 없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애뜻한 상황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노래한 힙합 알앤비(R&B) 곡이다. /연합뉴스

태진아 무비, 명MC 총출동

유재석·강호동 등

가수 태진아(사진)가 31일 신곡 '서울간 내남'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고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가 28일 밝혔다.

뮤직비디오에는 '국민MC' 이경규, 유재석, 강호동 등 비롯해 이수근, 조세호, 장도연 등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MC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들은 신곡을 노래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소속사는 "5년 전부터 차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는 태진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MC들이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간 내남'은 태진아가 지난달 발매한 동명 앨범의 타이틀곡이다. 트로트에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을 집목한 곡으로 복고풍 멜로디와 태진아의 구성진 목소리가 합쳐져 서울로 떠난 입을 그리는 애절함과 설렘을 표현했다. /연합뉴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소한 일상은 어떨까

유튜브에 1년간 활동 담은 다큐 공개

그룹 르세라핌(사진)이 지난 1년간 활동을 갈무리하는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28일 소속사 쏘스뮤직에 따르면 르세라핌은 29일 오후 8시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에 다큐멘터리 '르세라핌 - 메이크 잇 룩 이저'(LE SSERAFIM - Make It Look Easy)를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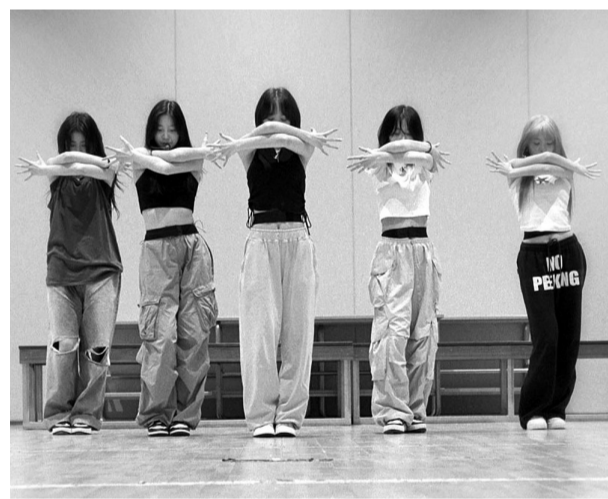
르세라핌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은 2022년 9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 무대 준비 과정과 멤버들의 소소한 일상, 첫 번째 단독 투어 등 지난 1년간 치열한 시간을 보낸 르세라핌을 만날 수 있다.

멤버들은 무대 아래에서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는 순간을 공개하는 등 불안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날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에는 멤버들이 서울 콘서트에서 객석을 메운 팬들과 함께하는 장면과 함께 자신에게 아이돌 활동의 의미를 묻는 모습이 담겼다.

다큐멘터리는 총 5편으로 이루어졌으며 29일 전편이 공개된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